**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금융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대응  
(2020.4.16일 기준)**

-기준금리 0.5%p 인하(1.25% → 0.75%) (3.16일, 3.17일 시행)

-600억달러 규모 한미 통화스왑 체결 (3.19일 발표)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실시 (총 151.6억달러, 누적 기준)

**-원화유동성 공급 확대 “오늘 기준 18조원”**

증권금융 및 증권사 RP매입(총 3.5조원)

국고채 단순매입(총 3.0조원)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 제도 도입 (3.26일)     
- 총 11.88조원 실시

EX.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 수출입/농업/중소기업/산업금융채권, 일반은행채,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확대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이 시행할 조치로 기대되는 것

= 우량 회사채 담보 비은행 금융기관 직접 대출 직접. 즉, 회사채를 담보로 하여 일반 증권사에 대출해주는 것(미국처럼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회사채를 간접 매입)

**한은, 사상 첫 '무제한 돈 풀기' 카드 꺼냈다**   
**# 사상 첫 '한국판 양적 완화'**  
  
한국은행이 3개월간 금융회사에 유동성(자금)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환매조건부채권(RP)**을 액수와 관계없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공급한다. 사실상 한국판 시도하는 것이다.

----------------------------------------------------------------------------------------------------------------------------------

cf) 환매조건부채권,

이 또한 단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보통 1~3개월 정도. 투자자에게 팔았다가 일정 기간 후에 이자를 붙여 만기시에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

*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할 수 있고 증권의 유동성을 높임

----------------------------------------------------------------------------------------------------------------------------------

**Q. 왜 이번 위기에 한국은행은 통안채가 아닌 무제한 ‘RP’를 이용하였나?**

----------------------------------------------------------------------------------------------------------------------------------

Cf) 통안채

정의 : 통화안정증권은 한국 금융시장의 유동성 조절을 목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금융채이다

원리 : 시장에 유동성이 과다할 경우 통안채를 발행하여 판매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통화)를 흡수 vice versa

----------------------------------------------------------------------------------------------------------------------------------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 = 수요 절벽과 유동성 위기

한국은행이 무제한 RP공급을 하면서 얻는 것 -> 단기 유동성 공급

무제한 RP매입이 증권사 자금조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

* 증권사들이 돈을 구하기위해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야했는데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보니 질이 떨어지는 회사채와 캐피탈 카드채는 안팔리고 결국 우량한 은행채나 국채 통안채 등을 매도한 탓에 한은매입RP의 담보로 쓸 수 있는 채권이 부족해짐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한은의 RP매입을 통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움

**Q 왜 정부는 통안채가 아니라 환매조건부채권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는가?**

미국이 T-bill을 찍어내지 않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과 같이 단기로 발행되는 재무성증권(Treasury bill ; T-bill)이 없는데, 허나 이 통안증권의 경우에는 할인발행의 경우에는 만기가 14일~546일로 10종류가 발행되고, 액면발행의 경우에는 1년, 1년6개월, 2년 이렇게 세 종류로 발행

* 우리나라에서 단기금융시장에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들 중 구성비가 가장 높은 T-bill과 같은 역할을 함

그리고 통안채는 발행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마음대로 유동성을 위해 크게 움직이기 어려움.

레포 자금 공급공급

한국은행의 회사채 매입?

<옛날 취재록>

한국은행은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을까.

2016년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것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대우조선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으로 하자니 이전에 조단위 돈 넣었던 전력이 있어 명분이 안서니. 이때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 구조조정에 동참하라고 했고, 이걸 한국형 양적완화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출자를 받으면 좋겠는데 한은법상 수출입은행은 출자가 가능한데, 산업은행에는 출자가 안됩니다.

정부는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코코본드입니다. 코코본드는 채권이면서 주식의 성격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출자를 못하지만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채권 매입은 할 수 있다.

산업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를 한국은행이 매입하면 출자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게 가능할까?

장면 1.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매입 대상 채권은 유통이 자유롭고 정부보증 채권이어야 한다. 코코본드의 정부보증을 받아오면 해줄 수 있다.

정부: 정부보증 받으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게 되면 뭐하러 이 짓거리를 하겠냐.

장면2.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윤면식 부총재보는(내용은 기억하는대로)

윤 부총재보: 발권력을 이용해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직접 지원도 하지 않냐

윤 부총재보: 금융중개지원대출도 발권력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다. 앞으로 줄여가야 한다.

기자: 발권력을 이용해 직접 지원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면 대기업은 안되고 중소기업은 된다는건 원칙에도 법에도 안 맞지 않나.

이때 결론은 한국은행은 코코본드를 인수하지 않았고,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현물출자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이에 준해 생각해보면 공개시장조작 방식으로는 회사채 인수가 안되지 싶은데요.

민간 기업에 여신을 할 수 있다는 법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회사채 인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꼬장꼬장한 한국은행님들이 그렇게 유연하게 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그땐 참 쓸데 없는 생각을 하면서 기자 마음대로 금통위 의사록을 작성하는 이상한 기사를 썼었군요.

[MTN현장+]한국은행 코코본드 매입 승인...금통위 가상 의사록